

2018년 봄호
통권 제89호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한
상애원 · 상애주간보호센터
상애노인전문요양원

서로사랑 相愛

만물이 새롭게 탄생하는 봄의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이 봄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상애원 · 상애노인전문요양원 직원 일동

상애원 · 상애주간보호센터 상애노인전문요양원

강원도 원주시 행구덕현길 108 (행구동)
전화 033)747-8080~2, 팩스 033)747-8083
이메일 www.sangaewon.co.kr



봄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던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가고 어김없이 상애동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웠던 땅속과 나뭇가지에도 어느새 새순의 기운이 흐르고 우리시설 어르신들의 표정에서도 밝은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르신들을 사계절에 비교한다면 가을 끝이나 겨울쯤이겠지만 우리는 어르신들께 봄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우리는 어르신들께 봄날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요양시설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낙상과 욕창이 없는 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낙상, 욕창 제로 운동을 실시하여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양로시설에서는 개별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의 개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제 시작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체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따뜻한 봄을 선물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을 무엇보다 시설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어르신이 존경받고 중심이 되는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4무 2탈**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저서였고 인력 면에서나 구성면에서나 우리시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요양시설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도 지향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4무인 냄새발생 무, 욕창발생 무, 낙상발생 무, 신체구속 무

2탈인 탈 기저귀 사용, 탈 침대 사용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삶이 존중되고 최대한 잔존능력을 유지하여 우리시설에서의 생활이 봄날 같은 내일, 아름다울 수 있는 내일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봄날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님,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상애원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8년 3월

봄날을 드리고 싶은 원장 **김 희 찬**

서로사랑 소식들

하반기 추모예배

2017 하반기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시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떠나신 어르신들을 추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함께하는 공동체와 같이하는 '찾아가는 다문화 배움터'

2017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놀이, 음식 등을 직접 만들고 체험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함께하는 공동체 직원 및 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송년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윗놀이를 즐기며 푸짐한 상품과 경품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다짐하며 2017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죽 즉 후원

본죽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영양과 사랑이 가득한 죽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직접 죽을 준비해 주셔서 어르신들께서도 맛있게 잘 잡수셨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죽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본죽 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사랑 소식들

노인학대 예방교육(입소자 대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께서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어떠한 행동을 겪었을 때 학대인지, 어떠한 행동을 하시면 학대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생활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원주시립교향악단에서 현악 4중주 멤버를 구성하여 어르신들 위해 음악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평소 휴게실 TV로 평창 음악회를 자주 시청하셔서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신 원주시립교향악단 단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 후원품 전달

한국관광공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위문품을 주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우리 시설에서 신규직원 교육도 진행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 지신밟기

정월대보름을 맞아 행구현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척사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설 내 어르신들과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인사도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하는 마음으로 행구 풍물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지신밟기놀이를 해 주셨습니다.



서로사랑 소식들

돼지문화원 나들이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여 돼지문화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피자과 소세지를 만들어 보고 금돈에서 특허를 받은 현미돈까스도 드셔보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설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신 돼지문화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청 도시철도와 후원

강원도청 도시철도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물품은 어르신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더 큰 사랑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렌타인데이 '서로 사랑을 나눠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시설 내 어르신들께서 초콜릿과 사탕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 직원들과 할아버지들께 초콜릿을 전해 주시며 다음달 화이트데이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웃으시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SHL 끝전 후원모금

SHL 회사 직원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1년동안 끝전모으기를 하여 보내 주셨습니다.

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어르신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매년 잊지않고 후원해 주시는 SHL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소 짓는 천사의 힘

상애주간보호센터
김진아 영양보호사

“이뻐! 이뻐! 눈도이뻐! 코도이뻐! 입도 이뻐! 다~이뻐!” 하시는 어르신들을 지나다 보면 엄지를 척 올리시며 또 다른 어르신들 까지도 웃으신다.

나 또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양손을 크게 흔들고 웃음으로 보답 해 드리면서 ‘눈도 밝으신 우리 어르신들’ 하고 생각하며 지나가다 보면 뒤에서 또 다시 들리는 말.

“눈도 이뻐! 코도 이뻐! 입도 이뻐! 다~이뻐!” 놀라 뒤돌아 보면 또 다른 선생님께 똑같이 좋은 말과 미소를 보여주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이곳의 미소천사 같다.

매일 출근길, 오늘도 무사히~ 어떻게 지내 나? 하던 고민을 이젠 하지 않는다.

자~ 어르신 우리 같이 프로그램 해 볼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난 못해! 안해! 하시다가도 막상 시작하시면 섬세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니 절로 힘이나고 부족한게 많은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항상 미소짓게 해 주시는 어르신들, 건강히 오래오래 미소지으며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목련이 꽃망을 터트릴 무렵

상애노인전문요양원
박원옥 영양보호사

건물 옆으로 목련나무 두어그루가 푸른 하늘과 붉은 담벼락을 배경으로 꽃티울 채비를 하고 있다.

처음 입소하실 때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어르신들과 조금씩이나마 대화가 진전되어 갈 때, 나로 인해 그분들의 삶 한 조각이 좀더 활기를 얻어 가시는 듯 하여 왠지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이젠 서로 농담도 할 수 있게 되어 손가락 하트 라는 일종의 귀여운 손동작으로 어르신들과 ‘사랑해요’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경칩,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는 따스한 어느 봄 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설 내 공원과 산책로를 누비며 한껏 이 봄날의 여유를 누비고 싶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

상애노인전문요양원
김 영 미 영양보호사

한 해가 다르게 어르신들은 등 굽은 새우처럼 돌아누웠습니다. 버섯 핀 얼굴들은 눈을 감고 잠을 청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제게로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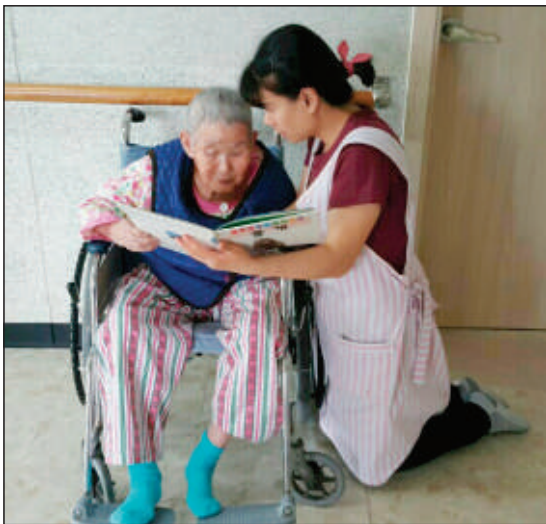
비록 연세가 많아서 약해지고 병들어 힘겨운 시간속에 계시더라도 어르신들의 삶은 가치있는 시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병으로 어르신 자신을 잃어버린다 해도,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곳에서는 웃음꽃이 핀다.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말씀에 웃고,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에 나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힘든 길이 분명할 테지만 어르신들께 두 손 내밀어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마음의 소리

상애노인전문요양원
서 희 란 간호조무사

아침 햇살이 요양원 거실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 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 정자에 모이듯 삼삼오오 옹기종기 앉아 담소를 나누신다.

어떤 이야기들로 이리들 즐거우신가 슬며시 옆에 가 앉아보니 모두들 제각각 당신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도 항상 마무리는 서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말이다.

“할머니 맛있으세요?” 하면 “그랴, 먹을만 해~ 좀 먹어봐” 라며 인정 받으신 어르신들이 과자 한 조각을 들고 그것마저도 나눠주시려 한다.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근데 얼른 죽어야지 이리 살면 뭐해”

우리들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였을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왠지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 온다.

창가에 깊게 들어오는 저 햇살만큼이나 우리 어르신들의 허전함을 그 어떤걸로 채워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또다시 수많은 생각들로 고민하게 만든다.

어쩌면 그 어떤 비싼약보다 어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드리고 웃음짓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치료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원예치료

이십 여 년 전 대학원에서 원예치료를 공부할 때 잠시 인연이 되었던 상애원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을 때, 반가웠습니다. 처음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보다 많은 경험이었으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원예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원예치료는 씨앗을 심고, 식물을 가꾸고, 수확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유혜숙 원예치료사

특히 어르신을 위한 원예치료의 장점은 다양한 감각의 자극에 대한 표현이 행복한 기억을 소환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 여러 가지 색깔의 장미, 안개, 붓꽃, 후리지아로 병꽃꽂이를 하였습니다. 여러 색깔의 꽃을 받고 한 어르신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꽃다발을 받았는데....”하시며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빨간색장미, 핑크색장미, 노란색 후리지아, 보라색 붓꽃의 다양한 시각적 자극과 장미의 우아한 향기, 후리지아의 달콤한 향기가 주는 후각적 자극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신 “지금, 이 순간” 꽃을 꽂고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봄이 되면 어르신들께 질문합니다. “봄에 피는 꽃은 어떤 꽃이 있나요?” 어르신들은 “진달래, 목련, 개나리”등등 여러 꽃나무의 이름을 대답하십니다. “나 어릴 적에는 진달래꽃을 따먹으면서 놀았어.” “진달래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우리 마을사람들은 함께 화전을 해 먹었어” 꽃나무에 대한 기억도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화분에 식물을 심기 위해 흙을 만지는 프로그램에서는 “흙냄새를 맡으니 참 좋네. 어릴 때는 흙으로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면서 소꿉놀이 했는데 이제는 다 늙어버렸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시절을 추억한다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그 시절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씨앗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여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도 식물과 유사한 생의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자신을 자연을 통해 느끼고 나무가 봄을 맞이하듯 우리도 봄을 맞이하면서 자연으로 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카터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에 지난날의 후회보다는 작은 일에도 마음 설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원예치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곱게 나이 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봄 봄 봄

상해노인전문요양원
조 선 희 요양보호사

오고가는 사람들의 옷이 얇아지고 치악산 봉우리의 눈이 녹을때쯤이면 어느새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도 설레고 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상해원에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꽃잔디, 벚꽃까지 피는 봄의 풍경을 상상하면서 따뜻한 봄을 기다려본다.

겨우내 얼었던 땅에 예쁜 꽃으로 변신을 한 상해원 산책로에 꽃구경, 소풍 나온 어르신들께서 즐거워 하셨던 작년을 생각하니 어서 빨리 따뜻해지고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창문으로 들어오자 할머니들께서도

“날이 풀렸나~창문을 열어도 춥지 않네”

“봄이 오는 게지~” 하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시는 할머니들께 다가가

“더 따뜻해지고 꽃이 필 때쯤 산책 모시고 나갈게요” 했더니 무척 좋아 하시면서도 미안해하시는 모습에 몽글해진다.

따뜻해지고 예쁜 꽃이 피는 봄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짐을 느낀다.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면 꽃을 피우듯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신 어르신들께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주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영화감상’



상해노인전문요양원

사회복지사
김 승 남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봄 햇살이 반갑기 그지없는 상해노인전문요양원의 나른한 오후 3시, 우리 이야기 반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화감상’을 시작한다. “오늘은 무슨 영화야?”라고 말씀들 하시며 한 분, 두 분, 방석을 들고 TV 앞으로 삼삼오오 모여 앉으신다.

영화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 속 코믹한 장면이 나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거푸 웃으시는 등 정신없이 영화 삼매경에 빠져 집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이 영화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며 본인 스스로가 기특하여 공연스레 어깨가 으쓱해진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영화를 보고 웃으실 때 마다 마음 속 한 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진작에 이 영화를 보여드릴 걸!’라며 뒤늦은 후회가 들고 죄송한 마음까지 들기도 한다.

격동의 한 시대를 살아오시며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내 자신이 앞으로 드릴 보답이 한없이 부족하고 작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늦게나마 즐거운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드린 뒤 프로그램을 마친다.

상애원에서의 2년

안녕하세요. 저는 상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 유달형이라고 합니다.



유 달 형 사회복지무원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곧 있으면 벚꽃이 만개할 봄이 오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날씨가 저에게는 소집해제가 다가온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재작년 봄에 상애원에 들어와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니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더 잘해드려야 했는데...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다양한 경험과 아낌없는 조언과 칭찬을 주신 상애원에 계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힘도 못 쓸 것 같던 저에게 일을 잘 못한다고 힐난하지 않고 무엇이든 친절하게 알려주신 선임들, 그리고 지금 직접 얼굴을 맞대며 같이 동고동락 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저에게는 사실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입시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로 결국 군복무 문제가 겹쳐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와 공부를 병행해야하는 저의 부담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직면하고 있는 나의 문제들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퇴근 후 곧 바로 독서실로 갔던 저의 예전 모습을 뒤돌아보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피곤한 모습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면 커피를 건네주시던 어르신,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라고 하시는 직원들 모두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 당일에 저에게 시험을 잘 보라며 초콜릿과 편지도 주셨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보답 드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4살 조금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상애원이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긴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초심, 열심, 뒷심. 공부와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초심, 뭐든지 성실하게 임하고자 했던 열심, 그리고 이제는 권태를 멀리하고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뒷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사무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끝날 때 아쉬움이 남아야 한다, 마냥 기뻐만하면 잘못 생활한거다.’ 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남은 복무기간 동안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근무하면서 아쉬움은 남지만 후회는 없는 상애원 사회복지무원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2018년 02월까지)

봉사



의료고등학교



남부침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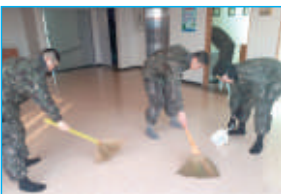


KT is



아워홈

봉사



36사 신병교육대



8전투비행단



원주미용학원



코리아문화예술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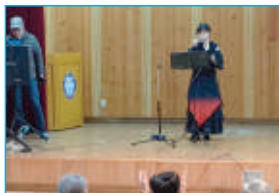
공연



산들바람 우쿨렐레



한마음하모니카



치악골 무용단



영강어린이집

공연



원주전통문화예술보존회



주산숲 어린이집



그림 유치원

방문



반곡초등학교



육민관고등학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상해 입·퇴소 현황(2017년 12월~2018년 02월)

상 해 원				상해노인전문요양원				상해주간보호센터	
* 입 소 *		* 전 원 *		* 입 소 *		* 소 천 *		* 입 소 *	
권O식	(12/01)	박O옥	(12/01)	박O옥	(12/01)	윤O원	(12/01)	나O순	(11/21)
최O희	(12/01)	전O숙	(12/01)	전O숙	(12/01)	강O식	(12/22)	전O옥	(11/28)
이O순	(12/04)	윤O남	(12/01)	윤O남	(12/01)	신O석	(01/06)	서O자	(11/30)
서O숙	(01/02)	이O희	(01/04)	김O균	(12/02)	김O희	(01/10)		
홍O익	(02/26)	한O우	(01/10)	김O근	(12/29)	원O순	(01/15)		
		안O춘	(02/20)	이O희	(01/04)	윤O환	(01/18)		
				한O우	(01/10)	이O철	(01/19)		
				김O환	(01/17)	김O환	(01/31)		
				서O순	(01/19)	이O섭	(01/29)		
				안O춘	(02/21)	이O희	(02/22)		
				* 퇴 소 *					
				나O순	(11/21)	전O옥	(11/28)		
				서O자	(11/30)				

연속정보	상 해 원	▶ 응급처치교육(12/04) ▶ 직원인권교육(12/04) ▶ 화재대피훈련 및 교육(12/26) ▶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01/02) ▶ 노인학대예방교육(02/05) ▶ 감염예방교육(02/05)
	상해노인전문요양원	▶ 응급처치교육(12/04) ▶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01/02) ▶ 종사자 윤리규정교육(01/02) ▶ 노인학대예방교육(02/05) ▶ 감염예방교육(02/05)

늘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 노인 학대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합시다.



노인학대 더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 : 사회복지신문

신체적 학대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타거나 고통을 주는 일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성희롱, 성추행을
강제적으로 행하는 성적 행위

방임 및 자기방임



부양자 또는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행위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헐뜯, 따돌림, 무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불의없이 몰래
사들이거나 빼앗는 행위

유기



부양자가 노인을
보살핌소에 버리는 행위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129)에
즉시 신고 한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처벌받을까 걱정돼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
혼자 참는다



언제 어디서든 전화하여
영사절차, 진행,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해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2017년 12월 ~ 2018년 02월까지)

소중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누락된 개인, 기관, 단체가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33)747-8080~2



후원금

(주)아워홈, 강경림, 강옥희, 강원도청도로철도과, 강정길, 강지혜, 강형운, 권영필, 권정자, 권혁신, 김경옥, 김경태, 김금자, 김기연, 김대성, 김덕화, 김동매, 김동영, 김미선, 김민규, 김민자, 김민철, 김병선, 김상균, 김선희, 김성덕,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완, 김옥열, 김우경, 김유환, 김재순, 김종성, 김춘규, 김현구, 김현섭, 김현지, 김희영, 김희자, 김희찬,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승극, 노재환, 단구새마을금고, 뚜레쥬르단관택지점, 문막드림교회, 문정주, 민병란, 박기숙, 박민정, 박상규, 박상조, 박원규, 박원옥, 박원희, 박윤희, 박은숙, 박은정, 박종현, 박종훈, 박희순, 반곡중학교, 방석현, 백병훈, 변홍자, 산업자원통상부, 상지대학교, 서지민, 서현의료재단, 성금순, 성수희, 성순현, 성희순, 세창약국, 손약국, 손평, 송미용, 신국연, 신명진, 신소영, 신승호, 심명화, 심지은, 안근형, 안승부, 안호범, 안희찬, 양숙영, 엄정순, 엄정은, 여평모, 염지연, 오병성, 오옥선, 용혜숙, 원주시의회, 원주의과대학, 유광자, 육민관고등학교, 윤병준, 윤선호, 윤일련, 윤희준, 이경아, 이규남, 이규희, 이명숙, 이민형, 이상학, 이송자, 이수하, 이승규, 이승원, 이애자, 이영수, 이영순, 이영옥, 이영희, 이옥순, 이용근, 이은희, 이임후, 이종숙, 이주환, 이혁진, 이형준, 이형진, 임무천, 임윤찬, 임재섭, 자원봉사, 장유본, 장정진, 장현우, 전승연, 정문수, 정미애, 정인섭, 정점이, 조선희, 조성도, 조아라, 조영철, 조용원, 주광순, 주산숲어린이집, 주의수, 진영학, 차정민, 최공현, 최문수, 최봉석, 최상식, 최종록, 최중환, 하인숙, 한국관광공사, 한금순, 한봉애, 한산도, 한상희, 한수진, 허경숙, 홍성옥, 홍승숙



후원품

강경림-카스타드 | 강원도청도로철도과-라면,백미,구이김, 세수비누,치약,초코파이 | 그림유치원-초코파이 | 기종철-기증떡 | 김순자-굴 | 김철수-요구르트 | 김한영-바나나 |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굴 | 남부침례교회-굴,롱스파이,카스타드,사탕,영양갱, 비피더스 | 노승극-가래떡 | 단구새마을금고-라면 | 뚜레쥬르단관택지점-단팔빵 | 무실어린이집-기증떡,딸기 | 문막드림교회-믹스커피,삼푸, 세수비누,휴지,물티슈,양말,수면양말,백미 | 박문갑-사과 | 박승태-백미 | 박영옥-바나나 | 박종훈-굴 | 반곡중학교-기증떡 | 본사모-소고기죽 | 산업자원통상부-구이김,사과,건미역,기증떡,소고기, 돼지고기,내북,카스타드 | 세창약국-동그랑땡 | 윤일련-굴 | 이규남-상품권 | 이순정-바나나 | 이옥순-굴,초코파이,베지밀 | 이옥자-굴 | 임봉애-굴 | 장봉래-굴 | 조정순-대봉,기증떡 | 조종식-배,사과,굴 | 주산숲어린이집-굴 | 주의수-굴 | 최공현-기증떡 | 하금이-사과,굴,포도주스 | 한국관광공사-백미,휴지,가루세제,세수비누 |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랜드)-옷



자원봉사

[노력봉사] 함께하는공동체, 보라미봉사단, 남부침례교회, 대한적십자사 동약봉사회, 판부여성의용소방대, 8전투비행단, 36사 신병교육대, 서곡리부대, 반곡중학교,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원주의료고등학교

[공연 및 행사 봉사] 치악골 무용단, 한마음. 은물결하모니카 합주단, 원주전통예술보존회, 풍선아트 사랑회, 도래샘앙상블, 그림유치원, 해피센터, 코리아문화예술단, 영광어린이집, 산들바람 우쿨렐레, 주산숲 어린이집

[주방 및 음식 봉사]- KT is, 아워홈

[이·미용 봉사]- 원주미용학원

[프로그램 봉사]- 함께하는 공동체

[학생 봉사]- 원주여자고등학교, 복원여자고등학교, 상지여자고등학교, 치악고등학교, 육민관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진광고등학교, 원주여자중학교, 단구중학교, 원주중학교, 대장중학교, 원주고등학교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웃사랑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신청문의 ☎ 033)747-8080~2

봉사종류

♥노력봉사 : 식사보조, 세탁, 식당, 목욕, 이미용

♥전문봉사 : 한방봉사, 의료봉사, 공연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우애봉사 : 어르신 말벗, 상담, 산책

상애원 세입 · 세출

◆ 2017년도 상애원 후원금 수입 · 지출

세 입			세 출			
세입예산과목		금 액	세출예산과목			금 액
관	항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100,844,242	사무비	운영비	여비	286,9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25,792,119			수용비및수수료	2,628,640
					공공요금	3,333,790
					제세공과금	50,000
					기타운영비	1,404,60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4,763,000
					자산취득비	629,000
					시설장비유지비	528,00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29,870
					수용기관경비	345,000
					파복비	112,000
					의료비	200,000
					연료비	8,489,930
				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5,526,000
합 계		126,636,361	합 계			28,326,730

◆ 2017년도 상애원 세입 · 세출 결산 총괄표

세 입			세 출		
세입예산과목		금 액	세출예산과목		금 액
관	항		관	항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751,700,920	사무비	인건비	574,630,21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25,792,119		업무추진비	7,200,000
전입금	전입금	11,736,800		운영비	31,852,874
이월금	이월금	102,126,686	재산조성비	시설비	10,306,610
잡수입	잡수입	16,411	사업비	운영비	155,396,580
				사업비	11,116,000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0
			잡지출	잡지출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1,278,320
합 계		891,372,936	합 계		791,780,594

◆ 2018년도 상애원 세입 · 세출 예산 총괄표

세 입			세 출		
세입예산과목		금 액	세출예산과목		금 액
관	항		관	항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867,961,470	사무비	인건비	636,63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32,000,000		업무추진비	10,700,000
전입금	전입금	20,000,000		운영비	80,200,000
이월금	이월금	110,500,000	재산조성비	시설비	58,000,000
잡수입	잡수입	200,000	사업비	운영비	201,000,000
				사업비	16,800,000
			잡지출	잡지출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27,331,470
합 계		1,030,661,470	합 계		1,030,661,470

상해노인전문요양원 세입 · 세출

◆ 2017년도 상해노인전문요양원 후원금 수입 · 지출

세 입			세 출			
세입예산과목		금 액	세출예산과목			금 액
관	항		관	항	목	
이월금	이월금	254,854,954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및수수료	3,220,1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63,319,592			공공요금	1,446,260
잡수입	기타예금 이자수입	111,707			차량비	82,000
					기타운영비	18,761,645
			재산조성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546,700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4,440
					수용기관경비	15,894,200
					의료비	3,972,700
					특별급식비	1,029,800
					연료비	2,965,030
				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2,226,830
합 계		318,286,253	합 계			50,149,705

◆ 2017년도 상해노인전문요양원 세입 · 세출 결산 총괄표

세 입			세 출		
세입예산과목		금 액	세출예산과목		금 액
관	항		관	항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338,932,230	사무비	인건비	1,481,334,433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83,608,510		업무추진비	15,60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63,319,592		운영비	128,287,220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1,626,962,010	재산조성비	시설비	44,678,090
전입금	전입금	28,254,600	사업비	운영비	306,634,800
이월금	이월금	282,970,966		사업비	2,226,830
잡수입	잡수입	30,928,065	잡지출	잡지출	2,459,378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740,100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58,500,000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120,000,000
합 계		2,454,975,973	합 계		2,160,460,851

◆ 2018년도 상해노인전문요양원 세입 · 세출 예산 총괄표

세 입			세 출		
세입예산과목		금 액	세출예산과목		금 액
관	항		관	항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394,962,840	사무비	인건비	1,740,414,107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102,074,930		업무추진비	16,40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73,200,000		운영비	107,077,400
요양급여수입	요양급여수입	1,923,046,460	재산조성비	시설비	127,148,000
전입금	전입금	20,000,000	사업비	운영비	384,413,130
이월금	이월금	330,000,000		사업비	7,600,000
잡수입	잡수입	4,675,140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30,000,000
			잡지출	잡지출	3,775,140
			예비비	예비비	252,631,593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58,500,000
				환경개선준비금	120,000,000
합 계		2,847,959,370	합 계		2,847,959,370

* 입소안내

상애원(양로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이 아닌 분 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분

▶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상애노인전문요양원(전문요양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시설급여 판정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및 일반 어르신

▶입소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요양비용의 10%
- 일반대상자 : 요양비용의 20% (식재료비 등 비급여 대상항목은 별도)

▶입소절차 :

전화(747-8080) 및 내방 → 입소상담 → 입소

* 이용안내

상애주간보호센터

▶ 이용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 이용정원 총 22명 (선착순 모집)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동서비스 시간에 따라 이용시간은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비스

- 생활지원서비스(목욕, 간식, 중식, 이미용서비스 등)
- 의료지원서비스(기초건강 체크, 물리치료)
- 센터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
- 인지 및 신체정서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웃사랑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문의 ☎033)747-8080~2

봉사종류

- ♥노력봉사 : 식사보조, 세탁, 식당, 목욕, 이미용
- ♥전문봉사 : 한방봉사, 의료봉사, 공연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 ♥우애봉사 : 어르신 말벗, 상담, 산책



* 후원 안내... 후원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귀하게 쓰입니다.

물품후원: 생활용품, 위생용품, 의류, 간식, 비품 등의 물품

일반후원: 비정기적으로 후원

정기후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

직접 상애원을 방문하시거나 후원계좌를 통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 303-01-0482-117 (예금주 : 상애원)

우 체 국 : 201061-01-000428 (예금주 : 상애원)

우리은행 : 1006-600-069452 (예금주 : 상애원)

기업은행 : 128-093076-04-016 (예금주 : 상애원)

농 협 : 307088-51-038151
(예금주 : 상애노인전문요양원)

307088-51-072607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해암재단)

307088-51-080731 (예금주 : 상애원)

-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참물 : 예금통장, 거래인감, 주민등록증, 상애원 계좌번호)

- 도와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